



우리가 만드는 더불어 사는 세상

2005 Summer Vol.23



충청남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
Chungcheongnam-do Youth Volunteer Center

여는글

꽃보다 아름다운 미소...

누구나 가진 건 아니지요.
마음이 순수한 사람..
생각이 맑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입니다.

수줍음 가득한 꽃 봉오리
미세한 떨림으로 향기를 내뿜 듯
온화하고 해맑은 미소는
잔잔한 느낌을 사랑으로 감싼답니다.

도르르 구르던 한 방울 이슬
밤새 땅 속에 숨어들어 강으로 흐르듯
살포시 웃는 부드러운 미소는
온종일 가슴에 머물다 정이 됩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지요.
가슴이 따뜻한 사람..
사랑이 샘솟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아름다움입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미소...
환한 햇살 같은 미소...
정이 흠뻑 담긴 미소는
바로 당신의 솔직한 사랑입니다.



손길 나눔

- 2 여는글
 - 3 차례
 - 4 센터로 가자
 - 5 프로그램 돋보기
 - 8 우리들의 봉사활동
 - 12 I'M TEENAGER
 - 13 동아리 탐방
 - 16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시범학교 소식 목천중학교
 - 17 봉사활동 체험수기
 - 19 봉사활동 도우미
- 여름방학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곳이 여기에 모였다

손길나눔은 충청남도의 도움으로 계간 발행됩니다.

센터 홈페이지(<http://www.bongsai.or.kr>)에서 「손길나눔」을 만나보세요. 최근호는 물론 과월호까지 편리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편지·원고 보내실 곳 주소_320-802 충청남도 논산시 취암동 19-1 공설운동장내 『충청남도청소년 자원봉사센터』
전화_041)736-9003~4 팩스_041)733-1984

발행처_충청남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 발행일_2005.7 비매품 편집·디자인_신세

프로그램 돋보기는 센터의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란입니다.

봉사활동 담당선생님 그리고 동아리지도교사 등 학생봉사활동에 관심을 갖으신 모든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장애우와 함께하는 청소년봉사활동

담당자 이선열

청소년들이 장애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직접 장애를 체험해보므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조화로운 공동체적 삶의 중요성까지 일깨우게 하고자 5월 21일(토), 천안 목천중학교 학생관에서 장애에 대한 강의, 시각장애인관련물품관람, 시각·청각·지체장애 체험을 실시하였으며, 28일에는 논산정신요양원 가족들이 논산고등학교, 논산여자고등학교 20명의 자원봉사자의 도움으로 전복 정읍에 있는 내장산 등반과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였으며, 6월 25일에는 공주시 동곡요양원(중증장애인시설)에 공주봉황중학교 학생과 학부모 교사등 110여명이 리코더연주, 사물놀이, 합창 등의 공연으로 가족들과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7월 9일에는 병천고 봉사활동 동아리 아름다운조리나눔터회원과 풍물반원과 마술을 하는 학생들로 구성된 봉사단이 공주시 반포면 명주원에서 케익과 샌드위치를 만들어 드리며, 명주원 가족들은 사물놀이공연과 마술공연을 즐기면서 맛있는 간식을 먹는 시간을 갖는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교는 센터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2005 해외봉사 활동

전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서는 대한민국청소년봉사단을 구성하여 지난해 12월 동남아시아를 강타한 지진해일(쓰나미) 피해국민 스리랑카의 난민을 위해 학용품수집 전달 및 난민촌복구활동, 각종 문화/체육/미술/음악 공연활동과 지도활동을 펼치며 쓰나미로 인한 상처로 슬픔에 젖어있는 스리랑카 난민들에게 작지만 큰 위안과 사랑을 나눠주고 왔다.

- 일시 : 2005년 5월 6일 ~ 17일(11박 12일)
- 장소 : 스리랑카(지진해일 쓰나미 피해국)
- 인원 : 전국 센터의 180여명의 청소년봉사자와 지도자 중 본센터 11명 참가



청소년아르바이트 교육

담당자 한난신

청소년아르바이트 권리를 적극 보호·육성함으로써 청소년 성매매·비행 등 청소년 문제의 효율적 대처 및 청소년 건전아르바이트 제도의 정착·확산 및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체험을 통해 전문적 직업능력을 배양하고 청소년들 스스로 직업을 선택·체험해 봄으로써 능동적인 직업관을 고취,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실시합니다.

- 일시 : 연중
- 장소 : 학교, 센터 교육실
- 인원 : 1회 100명 미만
- 내용 : 아르바이트 의의, 연소자근로기준법 바로알기, 아르바이트 실행의 문제와 대처방법
- 신청방법 : 본 센터의 홈페이지 www.bongsai.or.kr 일반자료실에서 신청서를 다운하여 신청하면 된다.

농어촌체험

봉사활동

담당자 이선열



농·어촌체험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농업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내고장 농업특산품과 영농지식 등의 정보 제공으로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4월 5일에는 공주시 장기면 장군산에서 공주지역 청소년 50여명이 참석하여 헛개나무, 오가피나무와 구절초를 이식하는 식

목행사를 가졌으며, 5월 13일 태안군 남면 몽산리에서 전통 물고기 잡는 독살체험·자염생산과정견학, 해양정화활동을 공주시 단천중학교 9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고, 5월 23일 봉황중학교 40여명의 학생들이 우성면 도천리 토마토재배농가에서 토마토밭 김매기를 실시하였으며, 7월 17일에는 아산시 외암리 민속마을에서 용화중학교 학생 40여명이 감자캐기, 친환경 농법견학 등 농사를 체험하며 농사일을 돕는 활동을 실시한다. 이외에도 밤수확 돕기, 고추수확 돕기 등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교사직무 연수

담당자 한난신

봉사활동 담당교사 및 학생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자원봉사와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올바른 이해 및 다양한 정보습득의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올바른 지도가 되게 하고자 60시간 연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일시 : 2005. 7. 25 ~ 7. 29 / 8. 1 ~ 8. 5 (10일간 1일 6시간 총 60시간)
매일 09:00 ~ 16:00
- 내용 : 학생봉사활동의 이해 및 실습, 테스트, 수료식
- 장소 : 공주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217호
- 대상 : 도내 중·고등학교 봉사활동 담당교사 및 봉사활동에 관심있는 교사 누구나 선착순 40명
- 접수 : 7월 18일까지, 팩스접수 ☎ 041-733-1984)
- 기타 : 참가비 없음. 참가자의 중식 및 교통비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청소년문화체험 · 환경보호봉사활동

담당자 김영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문화체험 및 견학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체험·실천이 어우러진 폭넓은 봉사활동을 통해 청소년 봉사활동의 질적 향상을 꾀함과 아울러 내고장의 아름다운 문화환경을 바로 알고 가꾸어 내 고장 문화환경지킴이로써 역할수행 및 애향심 고취하기 위하여 4월 30일 음암중학교 80여명의 학생과 선생님들이 서산시 해미읍성 병영체험장에서 「해미읍성 병영체험 및 행사장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였고, 5월 18일에는 결성중학교 90여명의 학생들이 경기도 이천의 「세계도자기비엔날레, 체험과 환경정화활동」을 6월 19일에는 논산여자고등학교 40여명의 학생들이 「대영박물관 한국전·세계도자기 비엔날레」 체험 및 환경정화활동을 하였다. 이밖에 환경정화활동으로는 6월 13일 보령중학교와 보령읍성 및 해산루 일원에서 문화재보호·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였으며, 20일에는 음암중학교와 성암저수지 일원에서 내고장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였다. 위와같은 활동을 원하는 분은 9월부터 12월까지 1회에 80여명이, 다양한 문화체험 행사장 및 문화재일원 등에서 참여가 가능하다.

2005 청소년 금강생태 체험

담당자 김영이

청소년들에게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학습하는 계기 마련과 자연생태체험 기행을 통한 자연사랑정신을 함양하며, 충청인의 깃줄인 금강에 대하여 탐구하고 애향심 및 환경의 중요성을 고취하고자 2005 청소년 금강생태체험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일시 : 2005년 7월 27일 ~ 29일(2박3일)
- 장소 : 전북 장수(금강발원지)/충남 금산(금강상류)/충남 서천(금강하류)
- 인원 : 청소년 100명 지도자 10명
- 문의 : ☎ 041-736-9003, 김영이

2005 청소년여름문화학교

담당자 이선열

청소년들에게 백제문화와 역사에 대하여 체험하고 학습하여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알고, 창의력과 문화적 감수성을 함양하도록 「2005 청소년여름문화학교」를 실시합니다.

- 일시 : 2005년 7월 30일(토) 11:00 ~ 8월 1일(월), 14:00(2박3일)
- 장소 : 부여청소년수련관
- 대상 : 도내 중·고등학생
- 인원 : 총 100명, 청소년 90명, 지도자 10명
- 내용 : 백제문화에 대한 강의 및 문화재 탐방, 전통놀이체험, 백제역사알아맞추기, 백제토기 만들기, 봉사활동 · 교육 등
- 문의 : ☎ 736-9003, 4 교육팀장 이선열

동아리 혹은 학교의 봉사활동 내용과 사진을 보내주시면 게재하여 드립니다.

공주정보고등학교 ‘굽은솔’



박다희 기자
공주정보고등학교

공주정보고등학교 굽은솔(대표 박다희)은 류영석 선생님의 지도로 6월 4일 단천면 분강리에 있는 삼취 복지관과 장기면에 사시는 독거노인 가정을 찾아가 봉사활동을 하였다.

삼취 복지관은 중증장애인이 있는 곳으로 모두 1급 장애인이 있는 곳이다.

우리 굽은솔은 그 곳에서 목욕봉사를 하였다. 먼저 장애인들이 있는 방에서 장애인들 갈아입을 옷을 준비하고 씻을 준비가 다 되자 목욕탕으로 들어갔다.

한명씩 목욕을 시켜주었는데 어떤 장애인분이 머리를 감을 때 거품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고 천진난만한 아이 같다고 생각을 했다.

그리고 어떤 한 아주머니는 다리가 불편하셔서 앉은 상태로 목욕을 시켜 드렸는데 자기 다리가 불편해 우리들이 목욕시키기가 불편할 것 같으면서 연신 미안하고 말씀하셨다. 웬지 그 말을 듣자 가슴이 찡 하는 느낌이 왔다. 우리들은 장애인들을 도와주러 왔는데 그 아주머니는 오히려 자신의 불편한 다리 때문에 우리들에게 피해를 줄까 걱정을 하셨기 때문이다.

목욕봉사는 장애인들과의 거리감을 빨리 해소해 주는 것 같다. 빨리 친해 질 수도 있고 장애인들도 우리들에게 마음을 빨리 열수 있게 하고....

다음번에 목욕봉사를 하게 된다면 이번에 했던 목욕봉사보다 더 잘 할수 있을것 같다. 또한 6월 18일에는 공주시의 도움으로 학교 근처, 장기면에 있는 독거노인을 찾아 갔다. 그 곳은 할머니와 초등학교를 다니는 손녀 4명이 있는 곳으로 어렵게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집에 남자가 없다 보니 집안 곳곳에는 남자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었는데 특히 담벼락은 페인트칠이 잘 되어있지 않아 좀 지저분하다는 느낌마저 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 간 페인트를 가지고 담벼락을 칠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페인트칠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잘 되지 않았지만 하면 할수록 요령이 생겼다. 그리고 그 집에 사는 아이들이 처음에는 우리들을 불편해 하면서 좀 피하는 듯하더니, 우리들이 페인트 칠 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들도 해보고 싶다며 다가왔다. 그래서 우리들은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의 집을 깨끗이 칠하였다. 페인트칠을 다하고 아이들과 할머니의 웃는 모습을 보자 힘들게 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다음에 올 때는 아이들을 위해 우리 학교 급에 있는 친구들에게 부탁해 집에 있는 동화책을 모아 아이들에 전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불당중학교 '누리보듬'



임승희 기자
천안불당중학교

6월4일 우리누리보듬은 장애인 9분과 동아리를 지도해주시는 한미나선생님과 어머니들과 함께 태조산공원에 다녀왔다.

난생 처음으로 장애인 분들과 놀러 가는 거라 기대가 되었고 한편으로는 내가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경험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며 태조산공원에 도착했다.

태조산공원에 도착해서 점심을 먹으며 장애인 분들께 친한 친구로서 또는 친손녀 손자로서 다가가려 노력했다. 다행히 장애인 분들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친숙하게 대해주셔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장애인 분들께 다가갈 수 있었다. 점심을 먹고 우리는 장애인분들 앞에서 다양한 장기자랑을 보여드리며 장애인 분들께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다. 과일을 먹으면서 장애인 분들과 하나가 되어갈 때 어느새 3시간 이라는 시간이 지나갔고 우리는 장애인 분들과 마지막으로

소중한 추억이 될 단체사진을 찍었다. 이쉽기도 하고 시간이 다시 되 돌아갔으면 하기도 했지만 어느 때 보다 크나큰 보람을 느꼈고 우리의 마음 한구석 에서는 진실한 사랑이 싹트고 있었다. 우리는 어머니 봉사단 2분이 계셔 조금의 힘은 덜 들었지만 힘든것 조차 느낄 수 없었던 하루를 되짚어 보며 집으로 향했다. 우리가 아직까지도 느끼고 있는 지금 이 기분은 아마 장애인 한분 한분의 믿음과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은 아닐까?



토요봉사활동안내

- 일시 : 매주 토요일 14:00 ~ 16:00
- 장소 : 공설운동장 정문 집결
- 내용 : 환경정화활동 및 지역사회 개발활동
- 준비 : 센터 홈페이지(www.bongsai.or.kr) 회원가입 후 봉사활동 하고 싶어요 신청
간소한 복장, 필기구
- 문의 : ☎ 041-736-9003,4

‘작은 실천 큰 기쁨, 한사랑으뜸봉사단’

당진중학교

김제인 기자

당진중학교

당진중학교(교장 조제영) 한사랑으뜸봉사단(단장 김제인)은 충청남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지원으로 당진군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6월 7일, 10일, 17일, 독거노인 및 재가 어르신들과 결연을 맺고 봉사활동을 하였다.

먼저 6월 7일과 10일에는 혼자사는 임미숙 할머니를 찾아가 방 청소, 유리창 닦기, 빨래, 안마, 과일과 음료수를 나눠 먹으며 이야기 들어드리기, 집 주변 쓰레기 줍기 등을 하였고 6월 17일에는 좀더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도록 2학년은 임미숙 할머니와 결연을 맺었고, 3학년은 유희남 할머니와 결연을 맺어 봉사를 하였다. 언제나 혼자이신 할머니는 친손녀, 손자를 기다리듯이 대문밖까지 나와 기다리셨고 함께하는 시간 동안 정말로 행복한 표정을 지으셔서 한사랑으뜸봉사단원들은 어른들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더욱더 자주 찾아보아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처음 시작한 당진중 한사랑으뜸봉사단의 규모와 활동은 매우 작고 미약했으나 열정만큼은 식지 않고 이어져 최근에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봉사와 또래별로 찾아가는 봉사활동을 하는데 서로의 시간을 맞추기 어려울 때는 2~3명이 한조가 되어 찾아가기도 한다.

요즘 청소년들은 어른에 대한 예의가 없다느니 이기적이고 인내심이 없다는 말을 흔히들 하는데 당진중학교 한사랑으뜸봉사단은 이런 말을 무색케 만든다. 또한 6월 11일, 15일에는 삼월리와 광명리 경로당 및 순성 아셀복지를 찾아가 봉사활동을 하였다.

먼저 6월 11일에는 그동안 같고 닳은 풍물과 각종 장기 자랑, 춤 등으로 어르신들의 주름진 얼굴을 잠시나마 펴드리는 역할을 하였고, 그 외에도 청소 및 다과회 등을 하였다.

6월 15일에는 순성면 아셀복지원에 다녀왔다. 경로당이나 독거노인과는 다르게 아셀복지원은 중풍어르신 열다섯 분이 계시다는 말을 듣고 TV 등에서 폭력과 욕설을 하는 중풍노인을 떠올리며 단원들은 망설여졌다고 한다. 그러나 몸이 불편하면서도 어깨를 들썩거리며 감상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모습을 보고 중풍 어르신도 내 집에서 함께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다르지 않다는 점을 새롭게 알았다고 참석했던 한사랑으뜸봉사단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창문을 통하여 다음에 또 오라는 말씀을 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며 우리들은 다음을 기약하며 무거운 발걸음을 돌렸다. 또한 6월 11일과 15일 ‘제7회 한국 4H’ 우수상을 받은 당진중 4H회원이 양 일 동안 대거 참석하여 흥겨운 사물놀이 공연을 펼쳐서 더욱더 알찬 봉사가 될 수 있었다.

당진중 한사랑으뜸봉사단원들은 다음에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음식을 준비해서 더 큰 웃음을 드려야겠다고 다짐한다.

마음으로 사랑을 전하는, 한마음봉사단



온양용화고등학교

이윤정기자
용화고등학교

온양용화고등학교 한마음봉사단(단장 김세림)은 4월 2일, 16일 온주시회복지관을 찾아가 봉사활동을 하였다. 우리 봉사단원들은 2조로 나뉘어 온주시회복지관과 함께 독거노인 및 재가 어르신들과 결연을 맺고, 저소득층 저학년 상담 및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하였다.

4월 3일에는 1조에서는 처음에 그곳에 도착하였을때 선생님께서 음료수와 사탕을 한마음 봉사단 친구들에게 나눠주셨다. 우리는 선생님께서 주신 음료수와 사탕을 가지고 각자 결연을 맺은 할머니를 찾아가 인사를 드리고 어르신들의 주름진 얼굴을 잠시나마 퍼드리는 역할을 하였고, 그 외에도 청소 및 다과회 등을 하였다. 2조에서는 아직 각자 맡은 저소득층 저학년 아이들아 오지 않아 공부방 도우미들은 아이들 이 올 때까지아파트 주변 쓰레기를 주웠다. 그리고 아이들이 오기전에 아이들을대 할 때와 가르칠 때의 주의사항을 들었다.

17일도 역시 즐겁고 희망찬 모습으로 할머니들과 저소득층 저학년 아이들을 위한 활동을 하였다.

할머니들과 저학년 친구들은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셨는지 반갑게 맞이주셨다.

우리 한마음 봉사단 친구들은 할머니께 인마도 하고 담소도 나누며 할머니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 같았다. 우리 한마음 봉사단 친구들의 봉사활동 아직은 서툴고 어색하지만 치츰치츰 활동해가면서 많은 것을 배워가며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자신이 스스로 할 줄 아는 사람이 될 것이다!

| 모티켓 | 매너모드



수업 시간에 자기들이 매너모드 해제해놓고 문자나 게임하다가 걸러놓고선 전 억울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솔직히 핸드폰을 가지고 오지 말던가.. 수업시간에 핸드폰을 만지지 말던가 하면 핸드폰 빼앗기지도 않을텐데.. 왜 괜히 핸드폰 만지작거리다가 빼앗기는지 모르겠네요.. 그런사람들 앞에서 보고 있으면 정말 한심합니다.. 그러니까!! 수업시간에 반드시 매너모드!! 매너모드 꼭 해놓으세요~~~~ 아니 꼭 꺼주세요.....

이제 주위를 둘러 봅시다.
 여러분이 지켜나가는 즐거운 휴대폰 문
 화가 모두를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가는 세상,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곧 모티켓의 시작입니다.라고 시작하는 한 이
 동통신회사에서 전개하고 있는 모티켓(Motiquette)
 에 대해서 알아보니다.



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6. 사무실 내에서 이동할 때 꼭 휴대폰을 지니고 다녀야 한다. 부재시 울리는 휴대폰 벨소리나 진동소리는 타인을 짜증나게 한다.

7. 상대방이 운전 중일 때는 다시 통화하기로 하고 끊어야 한다.

8. 학교나 공공장소에서는 휴대폰을 가방보다는 꺼내기 쉬운 주머니에 보관해야 한다.

9. 의료기기 주위나 병원에서 절대 사용하지

Motiquette이란?

모바일세상(Mobi)과 에티켓(etiquette) 이 결합된 용어로서 모바일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모바일 네트워크를 포함한 온라인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사용하면서 서로간에 지켜야 할 기본예절을 뜻합니다. 즉, 현대사회의 모든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사용하는 기본 에티켓이라 합니다.

모티켓은 규범으로서 존재하기 보다는 모바일 세상에서 누려야 할 “자유와 여유”를 찾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용한 지하철 안에서 혹은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통화하는 사람 때문에 얼굴을 찌푸리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혹시 주위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통화에만 열중하는 모습이 바로 당신의 모습은 아니신지요?

모티켓(Mobile+Etiquette) 10계명

1.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공공장소에서 휴대폰 벨소리를 진동으로 하거나 전원을 꺼둔다.

최근 전원이 꺼져 있을때도 통화를 시도한 발신자 번호 확인이 가능한 서비스가 있으니 꺼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휴대폰 게임을 할 때도 '뽕뽕' 소리 내지 않아야 한다.

2. 지하철이나 버스, 공공화장실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지 않아야 한다.

당연한 상식이지만 가장 안 지켜지는 것 중 하나이다.

3. 제3자 입장에서 모티켓이 있다. 통화자가 입을 가리고 조용히 통화하면 고개를 돌리든지 듣지 않는 것이다.

5. 통화할 때 전화 받는 사람의 통화가 가능한지부터 확인

밀알봉사단 활동 소개

우리의 땀과 정성을 다해!

황해안 유일의 해뜨고 지는 마을로 널리 알려진 왜목마을길목에 위치한 우리 석문중학교(교장 신양웅)는 전 학생이 6학년 184명으로 이루어진 작은 학교이다. 우리 학교에서는 지난 해 말, 작은 봉사의 마음들을 모아 정근훈 선생님의 지도로 '밀알봉사단'을 조직했다.

밀알봉사단에서는 우선 봉사활동 기금 마련을 위해 2004년 12월 31일부터 2005년 1월 1일까지 밤을 꼬박 세워가며 왜목마을에서 일일차집을 열었다. 커피와 녹차, 컵라면, 폭죽 등을 판매했는데, 좋은 일을 한다고 많은 학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셨고, 또 관광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약 130여 만원의 수익을 올려 석문면내 경제적으로 어려운 4기정에 쌀, 연탄, 병원비, 보일러 기름 등을 제공해 드렸다. 밤을 꼬박 세우며 장사(?)를 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지만, 참으로 뜻 깊고 보람 있는 하루였다.

최삿별 기자
석문중학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과 어려운 기정을 돕기 위해 충청남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학교 앞의 250여 평의 밭을 무상으로 빌려 선생님과 25명의 밀알봉사단원들이 땀과 정성을 모아 감자와 옥수수 등을 직접 심고 뿌려 가꾸고 있다.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갈 시간이면, 우리들은 밭에 가서 봉사활동을 한다. 감자를 심을 때는 씨감자를 지르는 사람, 심는 사람 등으로 나누어 일했다. 그러니까 훨씬 일이 빨리 끝나고, 서로 협동심을 기를 수 있었으며, 화합도 잘 되었다. 그리고 요즘은 감자 수확과 옥수수밭 김매기 등을 하고 있다.

지난 6월 26일에는 일반 감자 일부를 수확했다. 보라색 감자인 보라벨리는 7월 중순경에 켈 예정인데, 수확이 모두 끝나면 어려운 이웃들에게 모두 드릴 것이다. 우리가 직접 키우고 수확한 감자를 받으시고 좋아하실 어른신들의 모습을 떠올리면 저절로 흐뭇해진다. 우리의 작은 정성들이 한 곳에 모일 수 있도록 도와 주신 선생님과 우리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제대로' 활용해 보고자



노진웅 기자
병천고등학교

아름다운 조리 나눔터

우리 동아리는 이름처럼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제대로' 활용해 보고자하는 차원에서 결성되었다. 병천고등학교의 조리과 2·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에 맞는 구성원 모집에 들어갔다. 첫째, 좀 더 깊은 조리 지식 및 기술을 갖고 싶은 사람. 둘째, 이렇게 배

운 기술을 활용하고 싶은 사람, 셋째, 뚜렷한 봉사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장 중요한 것은 봉사정신으로 동아리활동을 통해 무언가의 보상을 원하는 사람은 참가할 수 없음을 강조한 결과 최대정원이 20명임에도 불구하고 30여명의 학생들이 동아리 회원 신청을 하였다. 지리적인 여건이 좋지 않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등의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제외하고 드디어 20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모두들 뽕뽕뽕뽕한 눈빛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하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친구들의 모습에 나 스스로도 동아리 회원이 될 수 있었음에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아름다운 조리나눔터는 한달에 한번씩 인근에 계신 무의탁노인을 모셔서 따뜻한 음식을 나누고 인근에 있는 독거노인과 결연을 맺어 불편한 것을 돌보아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매주 수요일 음식판매를 하기로 하였다.

드디어 무의탁 노인을 모셔서 음식 대접을 하게 된 첫날인 4월 9일, 단원들은 아침 일찍부터 학교에 나와 노인분들께 대접해드릴 점심식사를 만들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그날 만드는 주요리는 타르타르소스를 곁들인 치킨커틀릿이었는데 3학년 선배들이 요리리를 만들고 2학년은 닭의 살을 발라내는 등 보조를 맡았다. 점심시간이 점점 다가오자 대접해드릴 점심준비도 마무리되어갔다. 여학생들은 노인분들이 음식을 드실 실습동 평가실에 식탁 상차림을 하러가고 남학생들은 몸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을 모시고 유기위해 학교 교문으로 미주를 나가다 조금 기다리자 차를 타고 오신 노인분들을 볼 수 있었다. 다리가 불편해 지팡이를 잡고 오시는 분도 계셨고,



휠체어가 있어야만 움직이실 수 있는 분도 계셨다. 우리 단원들은 그분들을 모시고 실습동 평가실로 향했다. 우리는 치킨커틀릿 외에도 샌드위치, 생크림 과일케이크, 쌀밥과 김치를 준비했는데 모두 맛있게 드셔서 보고 있는 우리들마저도 배가 불렀다. 혼자드시기 어려운 분들은 단원들이 옆에같이 앉아음식 드시는 것을 도와드리기도 했고, 말동무가 되어드리기도 했다. 음식을 다 드시고 다시 타고 오셨던 버스로 가는 길에는 우리단원들의 손을 잡고 웃는 얼굴로 “고맙다”, “맛있었다” 등의 말씀을 해주셔서 아침부터 고생한 피로를 말끔히 씻어버렸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가시는 길에는 마지막까지 손을 흔들어 인사를 했다.

모두들 처음이라 힘들고, 노인분들 옆에 앉아 있는 것도 많이 어색했었지만 모두 봉사에 대한 열정으로 열심히 해주었다. 다음에 대접해드릴 때는 더욱 맛있고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우리는 생각했다.

우리 동아리는 노인분들께 드릴 음식비 마련을 위해 매주 수요일 아침 토스트를 판매한다. 토스트 판매 전 날은 토스트 재료를 준비해놓고, 판매 당일엔 평소보다 1~2시간 일찍 와서 토스트를 만들기 시작한다. 모두들 피곤해서 일어나기 힘든 이른 아침에 남들보다 일찍 학교에 등교해서 토스트 판매 준비를 해야 하지만 불만 하나 없이 자기가 맡은 일들을 해나간다. 한쪽에서는 토스트의 빵을 굽고, 또 한쪽에서는 토스트에 들어갈 내용물과 소스를 만든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실습실 한쪽을 개방해 판매를 시작하는데, 학생들은 줄을 서서 차례대로 토스트를 사먹는다. 학생들이 맛있게 사먹는 모습들을 보면 여태 고생했던 것들은 모두 잊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다. 아침을 먹지 않고 온 학생들은 배를 채워 좋고, 아침을 먹고 온 학생들도 값싸고(개당 500원), 맛도 있어 토스트를 많이 사먹는다. 그리고 판매할 때마다 행정실이나 교무실 선생님들께서 단체주문을 해서 매상을 올려 주셔서 우리를 기쁘게 한다. 같은 학교 학생이면서도 잘 알지 못해 말 한마디 못해보는 학생이 많은데, 토스트를 판매하면서 많은 학생들과 얘기 할 수 있어 좋았다.

아침을 먹고 오지 못한 학생들의 배를 채워주고, 무의탁 노인분들의 음식재료값도 마련할 수 있어 토스트 판매는 우리 아름다운 조리나눔터 단원들에게 있어서 보람찬 일이었던 것 같다.

아름다운 조리나눔터의 활동이 인근 지역에 소문이 나면서 6월 3일 대전 KBS에서 뉴스에 방영될 활동모습을 촬영하였다. 모두들 긴장되었지만 평소 마음속에서 우러난 봉사정신으로 부담 없이 활동하였고 그 모습이 그대로 담겨 좋은 인상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우리의 모습은 6월 9일 KBS 9시 뉴스에 자랑스럽게 방송되었다.

앞으로도 우리 동아리는 매월 한번씩 무의탁노인을 모시고 식사대접을 하고 비용마련을 위한 토스트 판매를 계속할 계획이다.

우리 동아리의 봉사정신이 모두의 마음에 따뜻한 햇불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단원들과 힘 모아 활동하려고 한다.



목천중학교



강지웅 기자
목천중학교

목천중학교 1학년 학생 87명은 지난 5월 21일(토) 장애인 체험 활동을 하였다. 충남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이선열 팀장과 대학생으로 구성된 교육 팀들은 학생들이 직접 체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1학년 학생들은 시각, 청각, 지체장애인의 어려움을 직접 몸으로 느껴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발가락으로 글씨쓰기, 인대로 눈을 가리고 걷기, 왼손으로 글씨쓰기, 발로 강통 찡기, 입 모양으로 의사전달하기, 목발체험, 휠체어 체험 활동을 하였다. 활동을 하고나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학생들이 떨쳐 버릴 수 있었다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과 행복들이 얼마나 감각에 많이 의지하는지 알았다'고 장애인

목천중학교 3학년 학생 82명은 지난 5월 21일(토) 선열들의나라이사랑과 독립정신의 얼이 담긴 독립기념관 주변 환경 정화활동을 하였다. 지역의 문화유적지를 아끼고 보호하기 위해 목천향교, 이동녕 생가와 박문수어사 유적지를 방문하여 조사활동과 쓰레기 줍기, 잡초 뽑기 활동을 하였다. 쓰레기 줍기는 손으로 하기에 비교적 쉬운 활동 이었지만 풀 뽑기는 잘 뽑히지 않아 고생을 많이 하였다. 흘린 땀방울만큼 보람도 큰 하루였다.

목천중학교 전교생과 선생님, 학부모님들이 5월 아버지를 맞이하여 가족사랑과 효의 실천으로 썩을 뜯고 썩을 모아 썩덕을 만들었으며 카네이션을 직접제작 하였다. 썩은 각자 조금씩 가져와 모았으며 썩은 전교생이 학교주변에서 뜯었다. 준비한 떡과 과일 음료를 노안정, 신아원, 효자의집, 사랑과 평화의 집, 살롬의 집을 방문하여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중창반 학생들은 아버지 은혜를 감동적으로 불러 많은 박수를 받았다. 방문한곳의 모든 분들이 감사와 칭찬을 하였고 다시 한번 봉사활동의 기쁨을 다같이 얻은 좋은 날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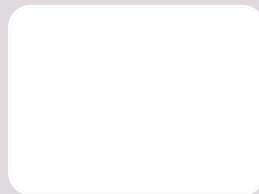


<휠체어 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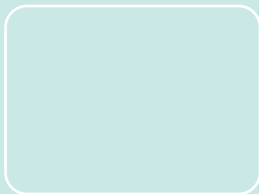
<강통 찡기>

체험후의 느낀 점을 서로서로 이야기 해보는 좋은 기회였다. 목천중학교 2학년학생 86명은 지난 5월 21일(토) 여러 복지시설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였다. 방문한 곳은 사랑의집, 사랑과 평화의집, 살롬의 집 등이 있었으며 학생들은 그곳에서 풀 뽑기, 병청소, 몸이 불편한 노인 목욕시켜드리기, 빨래하기, 등을 하였다. 학생들은 힘이 들었는지 불평을 했지만 갈수록 보람을 느껴 점점 열심히 하였다. 친구들과 같이 협동하면서 한 봉사활동은 좋은경험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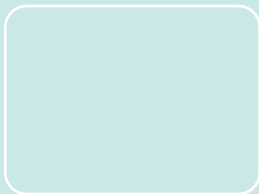


또한 지난 몇 주 동안 동아리 나무내 사랑빈에서는 학교 옆을 흐르고 있는 산방천 환경 정화 활동과 수질조사를 하였다. 수질조사는 계속하여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를 살펴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리동아리는 산방천을 깨끗이 하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다. 또한 가정에서 그냥 배출할 수 있는 폐식용유를 모아 비누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 많은 양의 식용유가 모아지면 세탁비누를 만들어 노인시설과 장애인 시설에 가지고 봉사활동을 갈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의 편리함을 위해 '장애인을 위한 학생 과학 발명 만화그리기'라는 주제로 여러 학생들이 활동을 하였으며 우수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 사랑과 평화의 집에서 봉사활동 >



< 이동녕 생가에서 봉사활동 >

2005 해외봉사 활동을 다녀와서

지난 5월 6일 ~ 16 총 9박 10일 동안 해외 봉사를 다녀왔다.

난생 처음 해외를 나가게 되어서 기대가 되기도 하고 떨렸고, 해일 피해를 입었던 곳이기도 하고, 말라리아에 걸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조금은 두려웠지만, 처음으로 해외를 나가는데 봉사활동을 하러 나간다가에 더욱 추억에남을 것 같았고, 더욱 뿌듯했다.

5월6일 부푼 가슴을 안고 사전교육을 위해 인천 연수원에 갔다. 교육을 받으면서 그 나라의 문화와 인사법, 예절, 그리고 몇 가지의 일상어들을 배웠다. 우리나라와 예절법이 다른 만큼 행동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인천 연수원에서 하루 밤을 보냈다.

5월 7일 인천공항에서 일본행 비행기를 탔다. 우리나라엔 스리랑카로 가는 비행기 편이 없어서 이다, 일본 나리타공항에서 스리랑카행 비행기를 탔다. 가내에는 우리 쓰나미 피해 지역 봉사단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많았다. 장시간 비행기는 처음 타 보는 것 이다, 많이 긴장을 했다. 비행기 안에서 게임도하고 음악도 듣고 기내식도 먹고 잠도 잤다. 12시간 이후 콜롬보 공항에 도착하였다. 밤에 도착하였지만 너무 습하고 더워서 숨이 턱턱 막혔다. 고단한 몸을 이끌고 숙박시설로가 잠을 청했다. 부모님과 동생 그리고 친구들이 보고 싶었다.

5월 8일 다음날 아침 사람들이 각 활동지역으로 이동하였다. 나는 마타라 지역으로 3시간동안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는 동안 내가 어떻게 해야 마타라 지역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했다. 봉사활동을 하러 온 것 이지, 놀러 온 것이 아니라고 몇 번이고 생각했다.

5월 9일 ~ 13일 마라타에서 본격적인 봉사활동을 하였다. 뉴스에서나 보던 해일 피해를 직접 보니, 더욱더 참해보이고 심각성을 느끼었다. 마라타에서 오전에는 그나마 햇빛도 뜨겁지않고 오후보다 덥지 않기 때문에 가옥 복구 및 마을 정리를 하였다. 오후에는 음악, 미술지도 및 체육활

한지수

공주정보고등학교3학년

동, 학용품세트 지원, 친선교류축제 개최(다과회), 현지 주민을 위한 영화상영회 등을 하였다.

5월 14일 콜롬보로 귀환하였다. 현지주민들과 헤어져 기분이 묘하게 슬펐다. 버디 산지도 생각이났다. 많이 잘 해주지 못 한것 같아 미안했다. 헤어질 때, 어드레스, 어드레스 하면서, 주소를 적어주고, 편지를 꼭 하라던 버디의단짜 친구 잠과도생각이났다.

5월 15일 세계문화유산을 견학하였다. 견학을마치고 쇼핑도 하러 다니고 부모님과 동생, 친구들 선물도 샀다. 쇼핑을 마치고, 저녁 식사도 하고 콜롬보 공항으로 갔다. 콜롬보 공항에서 밤 비행기를 탔다. 10시간이란 시간이 지나 일본 나리타공항에 도착하였다. 다시 2시간동안 비행기를 타고 인천 공항에 도착하였다. 5월 16일 인천 공항에서 해단식을 마치고 충남, 충북, 대전센터 이렇게 세 센터가 같은 버스를 타고 가게 되었다. 가다가 휴게소에들러서 한국 음식을 먹었다. 정말 맛이 있고 한국 음식이 맛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휴게소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청주어로 향하여 충북센터 분들을 내려 주었다. 그리고 대전으로 향하여 대전센터 분들과도 작별 인사를 하였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서 모든 것에 불만 이였고, 늘 반찬 투정 이었던 나는, 지금의 나는 행복 하다고느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음식도 입에 맞지 않고, 날도 덥고 습해서 힘들었지만, 현지주민들의 순박하고 순수한 웃음과 기부 미 초컬릿 조금은 불쌍해 보였지만,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기분은 좋았다. 정리가 마쳐지고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져서 힘들게 일한 보람을 느꼈다. 음악, 미술지도 및 체육활동을 할 때는 우리들의 어설픈 지도에도 잘 따라주고 환한 미소를 보여준 아이들 덕에 힘들지않았다. 작은 지우개, 연필 한 지루에도 감사해하며, 즐거워하는 아이들을 보며, 나 자신도 즐거워했다. 한편으론 나도 순수한 아이들처럼,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들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는 체험을 하게 되었다. 지체, 청각, 시각, 언어장애인을 직접 체험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나는 내 자신이 무척 부끄러워지는 기분을 감출수가 없었다.

나는 여행하며 아름다운 풍경을 디지털 카메라에 담는 것, 컴퓨터 게임, 채팅, 음악듣기를 좋아하고 뮤직비디오 보기를 생활하다시피 한다. 하루에 한 시간 정도는 매일 TV를 보며 신책을 하고 책 읽기를 좋아 한다. 청각장애인 체험을 하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내가 청각장애인이자면 내가 좋아하는 것 들을 할 수 있을까? 음악도 듣지 못하고 여행을 가도, TV를 봐도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을 것이다. 극장에서 영화를 지금처럼 감동적이고 생생하게 볼 수 있을까? 시각장애인이자면 어떻게? 당연히 여행을 가서 아름다운 풍경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카메라에 담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얼마나 불행할까? 누군가의 도움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라도 있을까 생각해 보니 지금까지 나는 장애인을 너무 배려하지 않고 살아왔던 것 같다. 처음 시각장애인 체험을 하였을 때 나는 우리가 흔히 숨바꼭질 놀이 하듯이 아주 가볍게 생각 했었다. 그러나 눈을 안대로 가리자 방향 감각을 잃고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물체인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밖의 상황을 전혀 파악할 수 없었다. 도저히 눈을 가린 상태로 적응 하기가 힘들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할 시각 장애인들을 생각해 보니 무엇인가 도움이 되고

사

싶었지만 방법이 열린 떠오르지 않는다. 나는 시력이 나쁘는데다 가끔 눈에 결석이나 염증이 생겨 앞을 잘 못 볼 때가 있어서 시각장애인 체험은 더와 닿았던 것 같다.

언어장애인 체험에서는 내 의사 표현을 다른





여름방학동안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곳이 여기에 모였다.

충청남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서는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을 연습하고,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삶의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는 활동인 봉사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회복지시설과 함께합니다. 저희센터 홈페이지(http://www.bongsai.or.kr)에 오시면 다양한 봉사활동과 각 시설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본센터 홈페이지(www.bongsai.or.kr) 접속하여 청소년 회원가입(회원에 가입하여야만 활동을 신청할 수 있음)

1. 청소년 회원가입(www.bongsai.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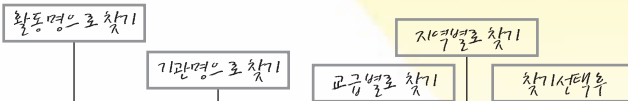


클릭

*표시는 반드시 기입하여야 함.

2. 프로그램신청(봉사활동신청)

회원가입이 완료되면, 로그인하여 '봉사활동 하고 싶어요'를 클릭한다.



번호	활동명	활동장소	활동일자	시간	지역	담당
1	대자관우 목욕지킴	천안목련점	20050312(토)	09:00 3시간	대전	
2	정신장애가족분류과의 만남	논산장신요양원	20050312(토)	10:00 7시간	49명	
3	정신장애관우분류과의 만남(말벗...)	논산장신요양원	20050312(토)	13:00 5시간	20명	
4	환경대회	천안목련점	20050312(토)	10:00 5시간	4명	
5	정신장애가족분류과의 만남	논산장신요양원	20050313(토)	10:00 7시간	19명	
6	세탁	천황요양원	20050315(토)	09:00 3시간	2명	
7	대자관우 목욕지킴	천안목련점	20050319(토)	09:00 3시간	대전	
8	정신장애가족분류과의 만남	논산장신요양원	20050319(토)	10:00 7시간	20명	
9	정신장애관우분류과의 만남	논산장신요양원	20050320(토)	10:00 7시간	20명	
10	세탁	천황요양원	20050322(토)	09:00 2시간	2명	
11	대자관우 목욕지킴	천안목련점	20050326(토)	09:00 3시간	대전	
12	정신장애가족분류과의 만남	논산장신요양원	20050326(토)	10:00 7시간	20명	
13	정신장애관우분류과의 만남	논산장신요양원	20050327(토)	10:00 7시간	12명	
14	세탁	천황요양원	20050329(토)	09:00 2시간	2명	

선택이 완료되면 신청하기 클릭

클릭

2005

청소년자원봉사박람회

■ 대 상 : 충청남도내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 공모부문

실천부문

- 개인 봉사활동 - 실천사례(소정양식), 관련자료
- 동아리 봉사활동 - 실천사례(소정양식), 관련자료
- ※양식은 홈페이지(www.bongsai.or.kr)에서 다운받으세요.

문예부문

- 체험수기 - 분량: A4 용지 4~5매 내외(내용 12포인트, 줄간격 160)
- 만화·컴퓨터그래픽 - 작품소개서, 만화 10컷 내외 8절 크기, 컴퓨터그래픽 8절 크기

■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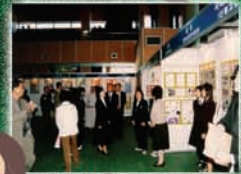
- 마감 : 2005년 10월 15일(토) 접수분에 한함
- 주소 : 충청남도 논산시 취암동 19-1 공설운동장내 ☎320-802
(충청남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

■ 시상내역

- 문화관광부장관상(4명) 개인, 동아리부문 중·고 각 1명
- 충청남도지사상(12명) 부문별 중·고, 대학생 각 1명
- 충청남도교육감상(24명)
 - [우수상] 개인, 동아리 부문 중·고 각 1명
 - [우수상] 체험수기, 만화·그래픽 부문 중·고 각 1명
 - [특선] 개인, 동아리 부문 중·고 각 3명
 - [특선] 체험수기, 만화·그래픽 부문 중·고 각 3명
- 충청남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소장상(44명) - 부문별 중·고 각 4명, 대학생 각 3명
- ※응모수에 따라 시상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화관광부장관상은 청소년업무이관으로 타 부처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문의

- 충청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 담당장학사 이 옥 주 ☎042-580-7233,4
- 충청남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부장 오 제 상 ☎041-736-9003,4



충청남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
Chungcheongnam-do Youth Volunteer Center

<http://www.bongsai.or.kr>

<http://www.youthalba.or.kr>

☎041) 736-9003(4) FAX : 041) 733-1984

충남 논산시 취암동 19-1 공설운동장내 (320-802)